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1주년 기념

제9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고 이태석 신부 유품 기증식

일시: 2020년 7월 1일(수) 14:00 장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9층 SERO 스튜디오



인사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존경하는 후배님, 그리운 후배님, 자랑스러운 동문님.

님이 떠나시기 전 나를 향해 웃어 주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남수단에서 나올 때마다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즐겁다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님이 떠나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님이 뿌리신 작은 씨가 싹트고 자라 여기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님이 사랑하신 남수단 제자들이 그 뜻을 이어 맺은 열매가 여기 모교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겠지요.

앞으로 님이 사랑하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우리 학교가 나갈 길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선종 10주기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맞으면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41주년 기념

제9회 이태석기념심포지엄

- | 주제 | 선종 10주기, 이태석 신부와 함께한 10년
- | 일시 | 2020년 7월 1일 (수) 14:00
-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9층 SERO 스튜디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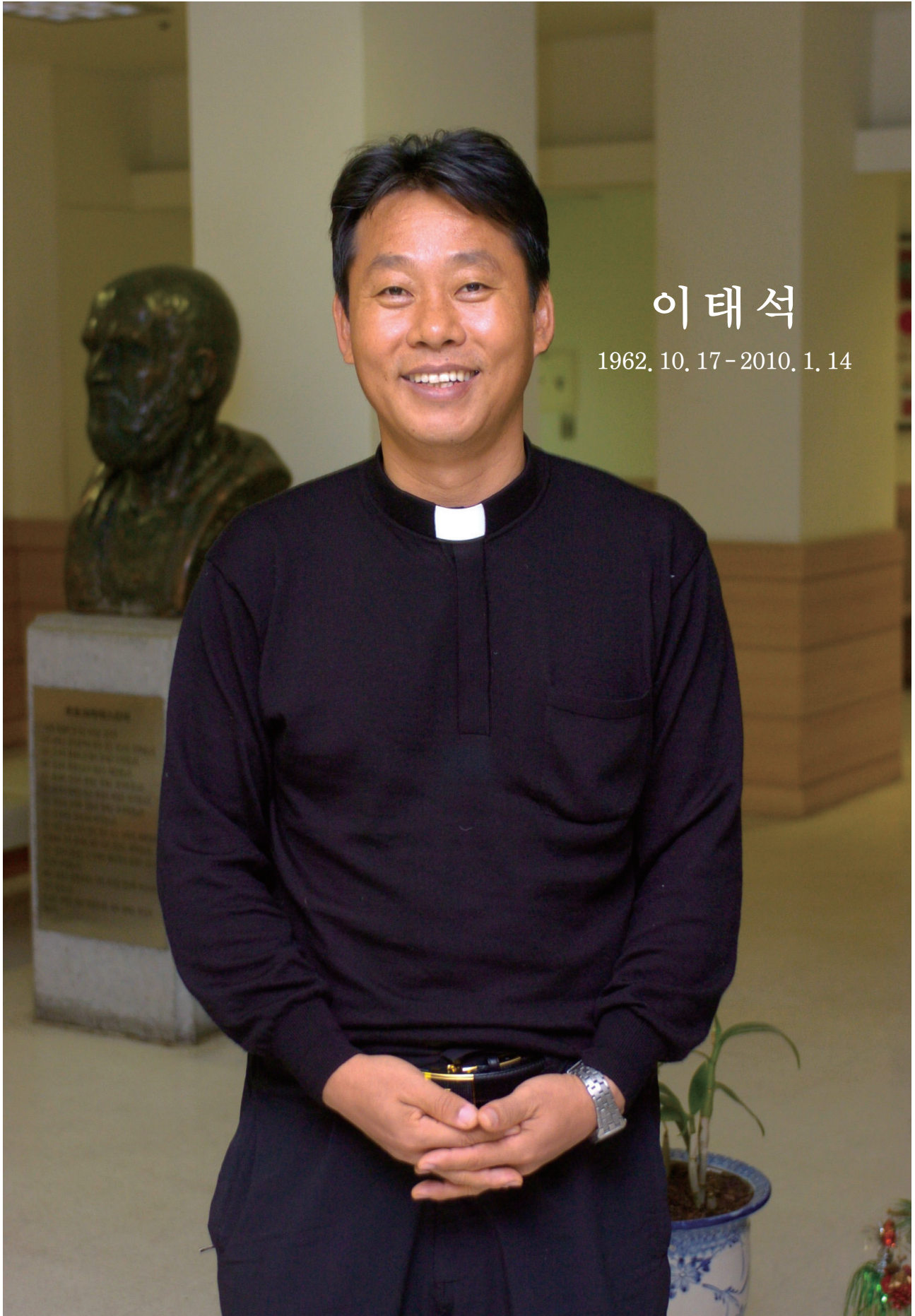
14:00-14:10	개회 의예과장 김택중 인사말 학장 최석진
14:10-15:00	내가 아는 이태석 신부님 주교좌 대흥동성당 주임신부 박진홍 내가 만난 이태석 신부님 전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오이화 이태석 신부님과 나 토마스 타반 부산백병원 외과 전공의 토마스 타반 아콧 이태석 신부님과 나 존 마옌 부산백병원 수련의 존 마옌 루벤
15:00	폐회

고 이태석 신부 유품 기증식

- | 일시 | 2020년 7월 1일 (수) 15:00
- |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9층 SERO 스튜디오

식 순

15:00-15:10	개식 의예과장 김택중 인사말 학장 최석진
15:10-15:30	유품 소개 전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오이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분석센터 수석연구원 최장승
15:30-15:40	감사패 전달 학장 최석진
15:40	폐식



이태석

1962. 10. 17 - 2010. 1. 14

이태석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1962년 10월 17일 - 2010년 1월 14일

- 1962. 10.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75. 2. 천마초등학교 졸업
- 1978. 2. 부산대신중학교 졸업
- 1981. 2.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1. 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7.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 4.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 1991. 8. 살레시오회 입회
- 1994. 1. 살레시오회 첫 서원
- 1995. 1. 서울특별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사목실습
- 1996. 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7. 1.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유학
- 1999. 8. 아프리카 남수단 와랍주 톤즈(Tonj) 첫 방문
- 2000. 4.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2000. 6. 부제 서품,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 6. 사제 서품
- 2001. 7.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임상연수
- 2001. 12. 남수단 톤즈 부임
- 2003. 12. KBS 1TV「한민족 리포트: 아프리카에서 찾은 행복 - 수단 이태석 신부」방송
- 2006. 1. 후원모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결성
- 2008. 11.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2009. 1. 후원모임 미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 결성
- 2010. 1. 선종(14일 오전 5시 35분)
- 2010. 1.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내 성직자·수도자묘역 안장(16일)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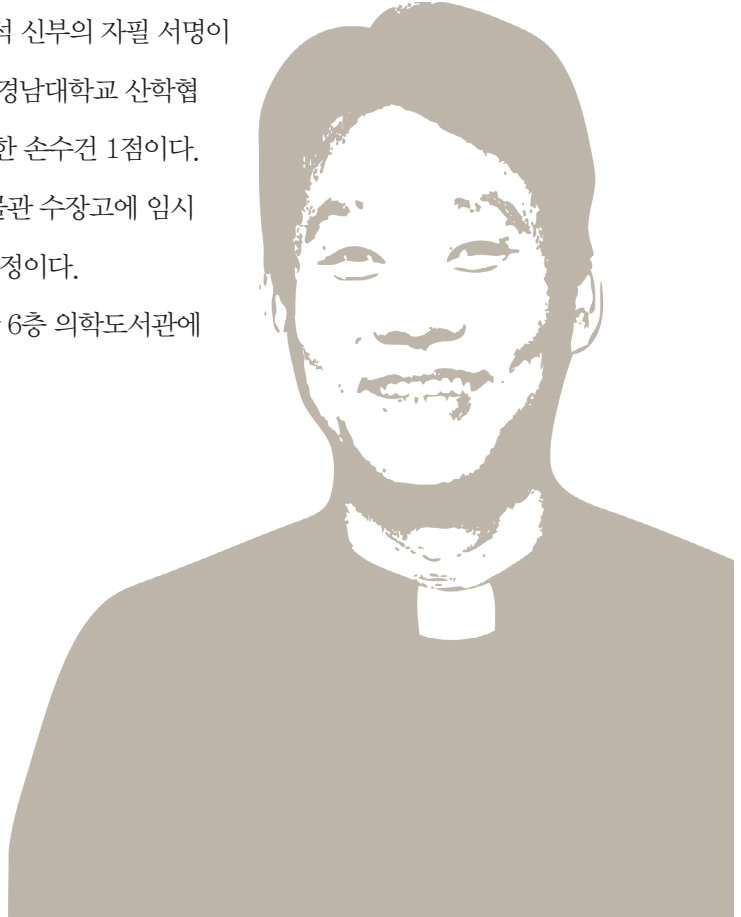
- 2005. 11.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7. 3.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
- 2009. 12.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공동 수상
- 2010. 12.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 7. 제1회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저 서

- 2009. 5.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
- 2011. 7. 유고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다른우리)

고 이태석 신부 유품 기증식 기증 유품

기증 유품은 총 4종으로서 전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오이화 이사장이 기증한 구두 1켤레, iPod MP3 플레이어 1점, 이태석 신부의 자필 서명이 담긴 수단어린이장학회 티셔츠 1벌 등 3종, 그리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분석센터 최장승 수석연구원이 기증한 손수건 1점이다. 오이화 전 이사장이 기증한 유품은 인제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 후 영구 전시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전시할 예정이다. 최장승 수석연구원이 기증한 유품은 현재 의과대학 6층 의학도서관에 상시 전시 중이다.



오 이 화
전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최 장 승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측정분석센터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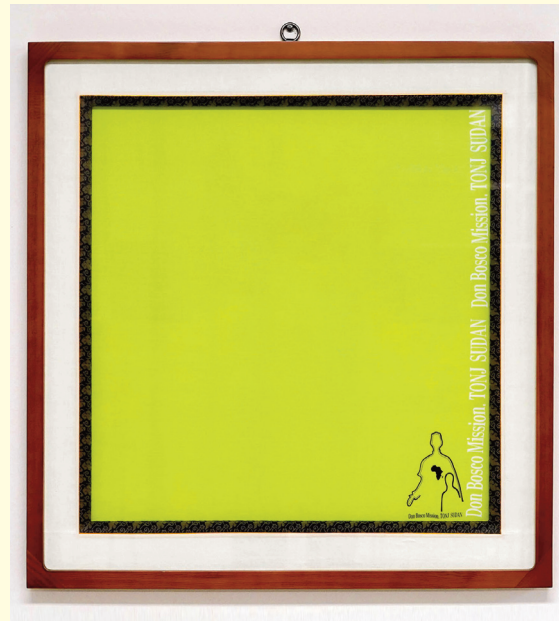
2008년 11월 29일 개최된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 음악회에서 장학회가 배포한 기념 티셔츠. 셔츠 배면에 “사랑한다. 이태석 신부. 2008. 11. 29”라는 이태석 신부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다. 기증자 오이화.



이태석 신부가 투병 중 사용했던 iPod MP3 플레이어. 뒷면에 “Fr. JOHN LEE TAESEOK, I THIRST FOR SOUL!”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기증자 오이화.



이태석 신부가 2008년 11월 투병 시작 후 2010년 1월 선종할 때까지 신었던 구두. 기증자 오이화.



2006년 10월 이태석 신부가 선교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손수건. 이태석 신부가 직접 디자인하였으며, 기증자 최장승 연구원의 주선으로 서도산업이 제작하였다.

내가 아는 이태석 신부님

어느 날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이태석 신부님의 진짜 모습은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그들은 생전에 이태석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 영화 ‘올지마 톤즈’에 나타난 이태석 신부님의 이미지와 자신이 알고 있던 이태석 신부님의 이미지가 어딘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진짜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면 다들 뭐 수궁이 갈 만큼 뚜렷한 특징을 잡아내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태석 신부님은 이런이런 분이다’, ‘이태석 신부님은 저런저런 분이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러면서 결국엔 이태석 신부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그건 어쩌면 인간의 내면에 담긴 일종의 교만이 아닐까 싶다. 마치 자신의 키가 더 크다고 우기는 어린이들처럼... 이미 세상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난 그분과 내가 더 친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자신이 만난 이태석 신부님을 설명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말이다. ‘너는 잘못 보았다. 내가 진짜다!’

사실 나 역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서로가 다르게 주장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 중에 교집합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참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그건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사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태석 신부님은 어떤 분이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작은 지면에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엄청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으로 나는 이 표현을 하고 싶다. “이태석 신부님은 참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였다”고 말이다.

사실 이태석 신부님은 그 행복한 삶, 당신이 어느 날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 수도자 이태석, 신부 이태석, 의사 이태석, 음악가 이태석, 건축가 이태석, 미술가 이태석, 과학자 이태석 등등 자신의 모든 모습을 전부 끌어 담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수단 톤즈에 쏟아붓고, 석석 비벼서 비빔밥이나 해 드신 분이 아니셨던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당혹스러워하는 이들을 장난스런 미소로 바라보면서 말이다.



박진홍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주임신부
저서 『톤즈를 웃게 한 사람』(2019)

내가 만난 이태석 신부님

유쾌한 웃음소리부터 떠오르는 신부님. 2004년 우연히 ‘한민족 리포트’라는 KBS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연주에 웬 신부님이 드럼을 신나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의아스러웠다. 무슨 일이지? 궁금함도 잠시, 가슴엔 이내 감동이 일렁거렸다. 아프리카 오지 남수단 톤즈라는 곳에서 사제로서 의사로서 희망 없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 주며 충실한 주님의 청지기 모습으로 선교 중이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을 그렇게 처음 마주하였다. 그날 밤 인터넷을 통하여 이태석 신부님을 후원하는 다음 카페에 가입하였고, 이후 수단어린이장학회 봉사자로 후원자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해 여름, 선교지로부터 첫 휴가를 나오게 된 신부님과 카페 회원들은 날을 정해 남이섬으로 1박 2일(7월 31일 - 8월 1일) 엠티를 갔다. 신부님께서 직접 사진을 보여 주며 당면한 톤즈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우리 눈엔 처참하고 불행하게만 보였는데 신부님 말씀으로는, 부족 간 갈등과 남-북수단의 전쟁 상흔으로 힘겹기는 하지만 그들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후원금 마련을 위해 같은 해 8월 29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는 사랑과 열정으로 뽀뽀 뽀뽀 보석 같은 음악회였는데, 결과적으로 제1회 수단어린이장학회 음악회가 되었다.

2007년 바쁜 휴가를 마치고 ‘자, 이제 15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라며 인천공항에서 톤즈로 향하시던 신부님의 모습은 오래 두고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만남이자 헤어짐이었다. 신부님은 누군가 그곳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 생각해주고 기도하고 있음에 기뻐하셨다. 후원의 크기보다 마음을 함께하는 크기에 더욱 흡족해하셨다. 톤즈 밤하늘의 별빛과 그곳 아이들의 눈빛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시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은, 있을 게 없던 그곳 톤즈의 내전의 상처만 가득한 두려움도 넉넉히 치유해 주실 만한 미소였다. 뒷날 신부님이 선종하신 해인 2010년 8월 남수단 톤즈를 장학회 이사로서 방문했을 때 올려다 보았던 그 하늘가엔 정말 머리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릴 듯 무수한 별들이 빛났다. 톤즈 하늘가에 별이 되신 신부님도 계시겠지….

주변을 유쾌하게 하시던 분. 2008년 겨울, 마지막 휴가에서 발견된 암으로 인한 투병 중에도 유쾌함은 여전하셨다. 사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셔도 방문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유머를 잘 사용하셨다. 투병 중임에도 주변인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어 주신 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셨고, 나눔이란 것이 그저 적선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게도 해주셨다.

늦가을 깊던 2009년 음력 9월 19일(11월 5일), 신부님 생신을 당시 머물고 계시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끈벚푸알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차려 드렸다. 단식 중이던 신부님은 붉은 카디건을 입고 붉은 와인잔이 담긴 잔을 들어 건배하며 환히 웃으셨다. 그냥 눈으로만 드셨기에 참으로 맘이 아렸던 시간이었다. 겨울에 비닐 부대 깔고 수도원 오르는 언덕배기에서 눈썰매 타겠다고 하셨는데 병세 악화로 눈이 쌓이기 전 병원으로 나오셨다.

2009년 12월 17일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을 수상하시기 며칠 전 신부님은 주변 고마운 분들께 간소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자 했었는데 이루지를 못했다. 두고두고 후회한다. 서둘러 의논하고 그리하지 못했음을. 이틀 뒤 19일 남수단에서 존과 토마스 군이 한국에 왔다. 늦은 밤 대림동 살레시오회 수도원에서 신부님은 있는 힘을 다해 환하게 두 학생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셨다. 하늘에서도 축복하셨을 두 학생이 이제 어엿한 의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니 무척 기뻐하시리라.

남수단 톤즈 선교지에서 신부님이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5시 45분이라고 하셨다.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35분, 신부님의 지상에서의 생은 아름다운 끝이었고 밀알이 되셨다. 그 10분! 톤즈 다녀 천국에 오르셨으리라. 그 새벽 의로기들을 제거하자 병실은 울음 섞인 성가로 가득했다. 나도 성가를 부르며 신부님 귀에 가까이 대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신부님, 당신은 성인 사제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소서. 주님 안에 편히 쉬십시오.”

밀알은 때가 되니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신부님에게서 역력히 보았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늘 사인해 주시던 신부님, 당신도 정말 사랑이셨습니다.” 신부님을 뵈 수 있었던 시간도, 동시대를 함께 살았음도 모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오이화

전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

이태석 신부님과 나 토마스 타반

저의 꿈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꿈만 꾸다고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의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우리나라(남수단)에서 21년 동안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다가 병에 걸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던 꿈이었지만, 이태석 신부님을 만난 후로 제 꿈이 더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께서 저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부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무조건 이태석 신부님 같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세어학당에서 배운 한국어를 가지고 의과대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목표를 꼭 이루고 말겠다는 신념과 의지는 나를 항상 지켜 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의사가 돼서 남수단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서 끝까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수련의)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올해부터 외과 전공의 1년차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를 시작하면서 인턴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맡고 퇴원할 때까지 그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경험이 별로 없고 일에 익숙하지도 않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윗년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윗년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일을 합니다.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전공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토마스 타반 아코트

인제대 졸업, 의사
현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외과 전공의 1년차

이태석 신부님과 나 존 마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이태석 신부님 제자 존 마옌이라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선종 10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떠나신 지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신부님은 항상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길에 신부님 흉상을 볼 때마다, 밤에 기숙사 돌아와 잠들기 전 제 방안에 걸려 있는 신부님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신부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14살 꼬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신부님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거리감 없이 저희들과 같이 장난을 치며 열심히 놀아 주시고, 축구나 농구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그 많은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톤즈 생활을 함께하면서 몸이 안 좋을 때 신부님께 직접 진료받고, 슬프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신부님이 “존 힘내, 잘될 거야”라는 간단한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로 제 마음 치료까지 해 주신 신부님께 항상 고마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했던 이 꿈은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톤즈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이러한 신부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모습에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의사라는 직업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었고, 이곳까지 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태석 신부님만큼은 따라가지 못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부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단어린이장학회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멋진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0년 1월 11일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순례단이 함께한 인재의대 '고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 추모식' 자리에서 존 마옌이 낭독한 추모사이다.)



존 마옌 루벤

인재의대 졸업, 의사
현재 인재대학교 부산백병원 수련의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에 성을 덧붙여 그를 '쥘리(John Lee)'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쥘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의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처음 결심대로 톤즈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 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간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이태석은 살레시오회를 창설한 돈 보스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공식 후원회인 사단법인 수단어린이장학회가 결성되고, 톤즈의 의료선교와 학생교육도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이태석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다.

글: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김택중